2024년 9월

CHA PHARM IN

약대생이 쓰는 약대 이야기-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편집부의 말

목현승 : 벌써 5-2라니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번 학기입니다 차팜인이 이번에 준비한 차약 소식 즐겁게 봐주세요 ₩

신선: 13번째 차팜인에 편집팀장으로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호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들 수고하셨어요~!

김동현: 이번 호차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당 재밌게 읽어주세요~

안지우 : 다들 알찬 1학기를 보냈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다음 2학기에는 더욱 알찬 차약이들 되길!!

이현영: 무더운 날씨도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네요~ 다가오는 계절도 가을 하늘처럼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승범: 유독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던 학기였는데요, 그만큼 재미있고 알찬 학기였다는 거겠죠?? 남은 2학기에도 함께 파이팅 합시다~~!

이가영 : 아싸 차팜인 짱 **조혜림** : 차팜인 너무 좋아요

신은서: 무더운 여름 차팜인 기사 작성과 함께 알차게 보냈습니다 기사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채현: 이번 호차도 다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손정호: 신입부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어서 편하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들 화이팅!!

김미행: 늘 재밌게 보았던 차팜인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당 독자 분들도 차약이야기를 추억하며 즐거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예진: 즐거웠던 4-1학기를 차팜인 기사작성과 함께 더욱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모두 2학기도 파이팅 하세요~!

이채원 : 그동안 독자로서 차팜인을 즐겨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팜인 편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방학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

손윤서: 매번 즐겨보던 차팜인의 한 학기를 기록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한우린: 입학 전부터 꼭 참여하고 싶었던 차팜인에 함께하게 되어 기뻐요!! 모두 2학기 파이팅 하세요~~

지도교수

양영덕 ntsky0816@cha.ac.kr

편집장

목현승 (약학과 20), <u>chapharmin@naver.com</u> 편집팀

신 선 (약학과 22), 조혜림 (약학과 22), 김미행 (약학과 21), 이채원 (약학과 22), 한우린 (약학과 24)

취재팀

오승범 (약학과 21), 목현승 (약학과 20), 이가영 (약학과 21), 손윤서 (약학과 23)

안지우 (약학과 20), 신은서 (약학과 23), 손정호 (약학과 19), 배예진 (약학과 21)

이현영 (약학과 20), 김동현 (약학과 22), 오채현 (약학과 23)

발행회차

2024년 13호

펴낸곳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지편집부

01 목차 / 편집부의 말

02 신입생 입학식 및 OT

03 약학대학 총 MT

04 청룡약학제 〈With Us〉

05 6학년 실습 인터뷰

06 약학연구입문

07 대외활동 소개 -KNAPS편

08 3학년 동기 MT

09 차약이들 동아리 interview

10 이달의 갓생

11 차약 해외여행기

12 차약 앙케이트



2024 신입생 입학식과 OT

2/23 판교 캠퍼스 입학식

2024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2월 23일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총장님의 축사로 시작된 입학식에서는 다양한 학사 제도에 대한 설명, 교내 단체-동아리 소개 등 새내기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마련되었다. 이후 동아리 공연, 추첨을 통한 기념품 증정 등 재미있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입학식이 끝나고 각 학과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약학과 24학번 학우들은 '릴레이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아이스브레이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새내기들이 처음 대면한 날인만큼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학생회 학우들의 주도로 오리엔테이션이 잘 진행된 덕분에 친밀하고 유쾌한 분위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24학번 김다경 학우는 "동기와 선배님들을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걱정과 설렘이 컸다. 하루 동안 입학식, OT에서 일련의 행사들을 경험하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새내기가 되었다는 뿌듯함이 남았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동기들과 친목을 쌓고, 뒤풀이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라며 생생한 소감을 밝혔다.





2024 신입생 입학식과 OT

3/4 약학과 OT

3월 4일, 새 학기의 첫날에 현암기념관에서 약학과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김은희 학과장님께서 직접 약학대학 교육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 교수님께서 학년별 교육 과정과 각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며 신입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후 회장단의 설명을 통해 분야별 교수님 소개, 약학과의 특별한 지도교수- 제자 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을 가졌다.

2부에서 회장단이 학생회의 구성과 국별 업무에 대해 소개하였다. 선배 학우들에게 직접 학교 생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유익한 Q&A시간도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차약이들이 가꾸어 나가는 다양한 약학과 동아리 소개를 통해 새내기 차약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3부는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차대 정보 퀴즈 맞히기, 이미지게임, 너도나도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이 진행되었다. 특히 너도?나도! 게임에 대한 학우들의 호응이 엄청났다. 새내기 차약이들이 친목을 다지며 기분 좋게 차약이로서 첫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입학식과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낸 24학번 차약이들의 학교생활에 차팜인이 큰 응원을 보낸다.



2024. 3.15~16

2024 計약 동엠티

Chapharmin 이가영 기자





3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 대학의 총 MT가 경기도 남양주시 켄싱턴 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모든 학년의 학생 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다지고, 약학도로서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2024년도에 개최된 첫 학과 행사로, 전 학년이 참가하는 자리였기에 차 의과학대학교 재학생들의 열정과 참여가 돋보였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루어진 행사였던 만큼, 신입생들에게는 더욱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신입생들은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동기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엠티 기간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학년과 함께 조를 이루어 레크레이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선 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약학대학 학생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교수님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소통의 시간은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깊게 하고, 학과 내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식사 이후 나영화 학장이 앞으로의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며 찬조금을 전달하며 학과 행사를 응원했다. 이어지는 저녁 레크레이션에서는 기획국장 이건표가 대표로 나서서 다양한 개별 게임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서로의 개성을 발견하고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친목 도모 시간에는 신임 교수님들이 게임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과 교수 간의 친밀도를 높였다. 교수님들의 참여는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학문적 소통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이번 총 MT는 단순한 엠티를 넘어 약학대학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모든 학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뜻깊은 행사들이 지속되어,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의 더 큰 발전과 화합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4년 5월 18일, 차약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전국 약대생 축제(이하 전약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024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약학제; With Us'는 약대생들의 화합을 기원하며 청룡 캐릭터를 중심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

12시에 밴드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12~15시, 18~21시 총 2부로 나눈 풍성한 각 학교의 동아리 공연이 펼쳐 졌다. 차약이들은 밴드 동아리 ACHAPPY, 댄스 동아리 요정, 힙합 동아리 팜양갱으로 참여하여 행사 분위기를 한 껏 신나게 만들어주었다. 밖의 잔디 구장에서는 체육대회 결승전도 펼쳐져 약대생들의 기량을 맘껏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시에 운동장에서는 다양한 부스가 진행되었다. 전약제 기획단과 각 학교가 준비한 다양한 부스들로 아기자기 운동장이 채워졌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행사를 즐기는 학생들은 즐거운 모습이었다. 특히 약포지에 사탕, 젤리를 직접 포장할 수 있는 부스들과 타로, 운세 부스가 인기를 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20학번 최인영 학우는 재작년에 이어 작년, 그리고 올해에도 페이스페인팅 부스를 운영하며 전약제를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막식이 시작되자 학교 깃발을 들고 약학대학 6개 지부가 등장하며 웅장한 모습으로 약대생들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다. 이후 전약제의 촛불로 대표되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가 이어졌다. 37개 학교 약대생이 한마음이 되어 좋은 약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진행하였다.

이번 전약제에서는 이전 참여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비음주 만남의 광장 또한 진행하였다. 체육관과 야외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드게임과 칵테일 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37개 학교의 약대생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전약제가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들고 친해지는 좋은 기회였길 기대한다. 차약이들에게도 유대와 우정을 더욱 깊게 하는 좋은 경험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CATE OF THE WEED US >

차약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interview

<부스 운영 베테랑> 5학년 최인영

Q. 2022년부터 세 번째 참여인데, 적극적인 참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부족한 실력이지만 내 취미로 축제를 더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재미있습니다. 또 많은 약대생들과 짧게 대화하고 소소하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Q.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A. 비용, 인력, 손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 았습니다. 현장에서 갑자기 변수가 생기기도 해서 급작스런 상황에 대처하려 이리저리 뛰었던 기억이 있네요.

Q. 부스 운영에 관심 있는 차약이들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A. 축제에 참가해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지만, 부스를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은 아니지만 학교 대표로 부스 하나 정도는 있으면 같은 학교 사람들의 작은 공간이 되기도하고, 부스 운영하면서 무언가 하나를 이끌어서 해보는 게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까요. 손님으로 온 많은 약대생들과 소소한 대화를 하다가 학원같이 다닌 친구를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사진찍으며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꽤나 뿌듯하기도 했어요. 부스를 안하더라도 축제에 많은 부스들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멋진 약대생활, 즐거운 축제즐기길 바랍니다. 화이팅!

<밴드 ACHAPPY> 3학년 신승철, 최서진 2학년 정혜원, 안민욱

Q. 멋진 공연 잘 감상했습니다. 소감 부탁해요!

A1. 전약제라는 큰 무대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기회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항상무대를 마무리하면 시원한 기분이 남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 보려구요 ㅎㅎ (22 신승철)

A2.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니 내내 설레고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22 최서진)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언제일까요?

A1. 마지막 연습 끝나고 마라탕 먹고 나서 심하게 체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공연 전에는 속 편한 음 식을 먹자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ㅎㅎ (22 최서 진)

A2. 전약제가 부산대에서 낮 12시부터 개최되었기에, 이른 새벽부터 다같이 버스를 타고 출발 했습니다. 전날 밤 긴장 때문에 잠을 설쳐서 버스에서 안대를 끼고 밀린 잠을 자려던 와중에, 실수에 대한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안대 낀 채로 에어 베이스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우리 과대가찍어준 제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몽유병 걸린 사람처럼 나와서 그 영상 보며 깔깔 웃다 보니 어느새긴장이 풀려 다행히 전약제 무대를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 정혜원)

CATE OF THE WEST

차약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interview

Q. 밴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차약이들에게 한마디 부탁해요.

A1. 노래 듣는 걸 즐기는 분이시라면, 그 노래를 직접 팀원들과 합을 맞춰 구현해 볼 수 있다는 큰 재미가 밴드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악기를 다룬다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노력하면 실력이 느는 것을 느끼며 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선후배님들과 함께 한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오는 애틋함이 있어요. (23 안민욱)

A2. 밴드는 다른 학번, 잘 몰랐던 동기들과 친해지는 데에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밴드 가입해서 함께 즐겁게 연주해봐요!! (22 신승철)



<**댄스동아리 요정>** 4학년 방예진, 이지선 2학년 나하영

Q. 공연 잘 보았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A. 전국 약대생 축제에서 처음 한 공연이라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신입생일 때 전약제 공연 보면서 즐거웠고, 공연자분들도 정말 멋있고 재밌어 보였는데 제가 직접 공연하니 더욱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23 나하영)

Q. 공연을 준비하며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A. 공연자 모두가 워낙 열심히, 즐기면서 공연을 준비했기에 큰 걱정 없이 무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약제 무대 직전까지 부산대학교 건물 유리에 비친모습을 보면서 리허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무대에 임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ㅎㅎ (21 방예진)

Q. 요정에 관심있는 차약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를 대표하여 큰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춤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같이 즐겁게 춤추면서 쌓인 학업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추억만들어봅시다!! 환영합니다! (21학번 방예진)

A2. 요정을 하면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동아리 원들끼리 진짜 많이 친해져요. 후배였을 때를 생각 해보면 선배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어려웠는데, 친 해지고 싶은 차약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 다!!!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요정 활동 많이 하면서 학교생활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 고 싶습니다! 차대 요정 파이팅!! (21 이지선)



예비 약사들이 들려주는

실습 후기

6학년의 커리큘럼, 실무실습

지난 11월,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들을 대상으로 화이트코트 세레머니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여받은 화이트코트를 착용하고 학교를 떠나 실습지에서 예비 약사로서 업무를 배워나갑니다. 보통 12월부터 실습을 시작하여 실습지별로 5~10주 동안 실습이 진행됩니다. 실습 기관에는 지역 약국, 병원, 제약회사, 연구실 등이 있으며 실습 순서는 개인마다 상이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비 약사들은 실습지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산병원

0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 Eŀ~

A1. 안녕하세요, 아산병원에서 심화 실습까지 진행한 19학번 최우혁입니다. 실습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5주입 LIEŁ.

Q2. 실습지에서의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A2. 근무 시간은 실습 사이트에 따라 07:30 ~ 16:30, 08:00 ~ 17:00, 08:30 ~ 17:30으로 나뉩니다. '약 및 예제제 조제', '신약 보고서 작 성', '부작용 사례 보고', '약물 TDM 실습', '의 약품 정보 작성' 등 실습 사이트마다 새로운 업 무를 맡았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일정 금액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며 병원 내 식당 이나 베이커리 또는 마트에서 사 먹었습니다. 업 무 외에 과제가 따로 있고 양이 많아 실습이나 교육이 끝난 이후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과 제를 했으며, 과제를 하다 보면 하루가 끝났습니

Q3. 필수 실습에 이어 심화 실습까지 아산병원 에서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선택한 계 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A3. 아산병원은 '필수 실습 후 심화 실습' 혹은 '심화 실습만'으로 실습생을 받기도 하였고, 이 전에 실습하셨던 선배님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 아 저도 아산병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Q4. 이산병원이 갖는 (단병원과의) 차이점은 무 엇인가요? 실습생

아산병원은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실습 조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 약사로서 일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병원 약사

아산병원에 처음 입사하게 되면 무작위로 부서 배치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부서에 무작위로 배치되어 일을 차츰차츰 배워나가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뒤 희망부서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바로 경험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적성과 맞지 않은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Q5. 실습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5. 필수 실습 마지막 주에 간 이식 환자에 대한 SOAP 노트와 복약 상담문을 직접 작성해 본 뒤 해당 환자에 대한 약사님의 복약 상담에 참관한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복약 상담문과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작 성하면서 궁금했던 점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흥미가 생겨, 심화 실습 사이트 를 장기이식 파트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 과 매우 만족스럽게 실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 LICI.

Q6. 실습지로 아산병원을 추천하시나요?

A6.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병원 약사의 업무 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 병원 약사에 뜻이 있거 나 졸업 후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에 게 매우 좋은 실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만큼 일도 많고 과제도 많다 보니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산병원 주변에 다른 실습지(약국, 제약회사 등)가 없어 실습 동 안 거주할 곳을 구해야 하는 경우 위치. 가고자 하는 분야 등 다양하게 고려해서 실습지를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병원 밥이 매우 맛있습니다!!

Q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VX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김혜본입니다. 현재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 백신(VX) 팀에서 실습하고 있으며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입니다.

PV 안녕하세요, 19학번 유혜리입니다. 현재 GC녹십자 의학 본부 약물감시(PV) 팀에서 하반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습이 7월부터 시작하여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Q2. 실습지에서의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녹십자의 주력사업이 혈액제제, 백신,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달리 각각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VX) 팀에서는 녹십자의 백신을 해외 파트너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Market Analysis → Finding Partners → Agreement → Registration → Management)의 흐름으로일이 진행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해당 의약품의 시장 조사를 하여 파트너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후 그 나라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후허가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할 때 그 나라에서의마케팅과 영업 등의 활동까지 관리합니다.

백신(VX) 팀에서 실습생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일정한 루틴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팀에게 필요한 업무를 주십니다. 현재 제가 하는 일은 Objection handling으로 자사 의약품에서 제 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이 를 문제 삼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회사 내부의 영업사원과 외부의 의료인을 위한 교육 자료,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팀끼리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구내식당은 점심, 저녁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맛있습니다! 저의 경우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회사 내의 헬스장에 갔다가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갑니다.

PV PV 팀에서 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①의약품의 이상 사례를 수집하고 인과성을 평가해 보고하는 Case Processing, ② PBRER (Periodic Benefit-Risk Evaluation Report), DSUR (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등의 안전성 보고서를 작성하는 Aggregate Reporting, ③ RMP (Risk Management Plan) 작성, Signal detection 등 위해성을 관리하는 Risk Management, ④ PV System Administration이 있습니다.

회사의 여러 팀 중에 PV 팀 실습생이 가장실무에 가까운 일을 받게 됩니다. 저는 현재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안전성에 관한 문헌 검색, Oracle Argus나 CSafeR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case entry, 품목갱신 line listing, RMP 작성에 필요한 항목의 초안 작성 등다양한 업무를 부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Q3. 다양한 선택지 중 녹십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PV 학교 시스템상 심화 실습으로 가고 싶은 제약회사를 고를 수는 없고 원하는 부서를 2지 망까지 써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실습 일정에 맞춰 회사를 배정해 주십니다. 저는 학교에 제출할 때부터 1지망을 PV로 써서 냈는데, 약사들이많이 있는 부서가 PV이기도 하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이 아닌 안전성을 관리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PV부서를 지원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녹십자는 회사에 배정되더라도회사 자체적으로 실습생 부서 배정을 따로 실시하는데 이때 이력서에 자신이 가고 싶은 부서를잘 엮어서 쓰면 원하는 부서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Q4. 제약회사에서 실습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나요?

PV 회사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며 새롭게 배우는 것이 많았으며, 업무를 하거나 교육을 들을때 '이거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 지식이 많이 쓰였습니다. 또한 제약회사 취업에 있어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직접 일을 해보니 문헌검색을 할 때 계속 영어를 읽고 보고서 작성도영어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회사는 식약처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 실습을하면서 식약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Q5. 실습지로 녹십자를 추천하시나요? (+녹십 자 장단점)

VX 제약회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실습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업무의 전체를 경 험할 순 없으나 회사의 분위기나 제약산업의 업 무 흐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부서가 다양하고 체계적입니다. 또한 매주 실습

녹십자

생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부서들의 팀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해 강의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다른 실습지에 비해 실습이 늦게 끝난 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늦게 끝나는 편이 아니었고 저의 경우 오히려 날씨가 좋을 때 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PV '실습지' 관점에서 보면 추천합니다. 녹 십자는 실습이 체계적이며 점심과 저녁이 무료 로 제공되고 실습생에게도 월차가 주어지는 등 복지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학교의 실습 생들과 같이 실습을 해서 재미있기도 하고 회사 공장 견학도 갑니다. 회사가 용인에 있어 조금 멀지만, 수도권 셔틀 노선이 잘 되어있어서 멀리 서 사는 친구들도 셔틀을 타고 통근하고 있습니 다. 하반기 실습이 늦게 끝나긴 하지만, 상반기 실습으로 가게 된다면 국시에 대한 부담감 없이 실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

99

Q1.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차바이오컴플렉스(이하 차바컴) 김애리 교수님 연구실에서 5주간 연구실 실습을 진행한 19학번 황준이라고 합니다.

Q2. 실습지에서의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A2. 근무시간은 9 to 6였으며, Emulsion 형태로 약물을 체내로 운반시키기 위한 제제 관련 연구를 맡았습니다. 선후배님들이 약학연구입문때 했던 실습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수님과 연구실 선생님의 지도하에 직접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습 동안 과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마다 랩 미팅 시간에 연구했던 내용을 PPT로 정리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었어, 실험 결과들을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점심은 보통 동기들과 지하 1층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며, 가끔 대학원 선배님들과 주변 맛집들을 가기도 했습니다.

Q3. 다양한 선택지 중 연구실(대학원) 혹은 담당 교수님 랩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3. 제제학 분야가 매력적이라 생각했으며, 생

물과 화학이 두루두루 섞여 있어 실험도 재밌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김애리 교수님 랩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4. 연구실 실습을 진행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연구원(대학원생)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A4. 아직 경험해 본 것들이 많지 않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약학연구입문과 실무실습을통해 연구라는 것이 절대로 본인 의도대로 되지않으며, 수십 번 반복해서 같은 실험을 해야 할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변인들이 너무 다양해서 실험 조건이 살짝만 변해도 결과가달라질 수 있기에 인내심과 꼼꼼함이 중요한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연구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 대학원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Q5. 실습지로 연구실(대학원)을 추천하시나요?

A5. 추천합니다~ 필수 실습인 약국과 의료기관실무실습과는 달리, 실험 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를 해본다는 것이 30주라는 전체 실습 기간 중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실습하는 동안 차바컴에 있는 동기들, 후배들과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약학연구입문

약학연구입문은 약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이해하고 약학 연구자로서의 기초소양을 함양하도록 약 한 달간 약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차의과학대학교만의 차별화된 전공선택 과목이다. 21학번과 22학번이 겨울방학부터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희망 지도교수님과 개별 상담을 하여 연구실을 배정받고 약 한달 간 '차 바이오 콤플렉스'에서 학부 연구생 경험을 하였다.



<퇴근길 차바이오컴플렉스 전경>

새로운 신약후보물질 연구와 유기합성에 관심이 있었기에 나영화 교수님 랩실에서 한달 간 약학연구입문을 수강하였다. 나영화 교수님 랩실의 경우 낭포성 섬유증과 관련된 Cathespsin S (CTSS) 를 타겟으로 하여 염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CTSS를 억제할 수 있는 소분자를 합성 및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실험 전 Chem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워드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고 총 4주간 교수님이 주신 화학구조를 합성 후 매 실험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피드백을 받았다.



<발색시약을 이용한 TCR로 반응완료 결과 확인>

화학구조 합성 후 NMR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면 순수한 물질이 얻어졌는지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면서 불순물이 섞였을 경우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다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주차 실험 후에는 합성물질에 분자량 및 화학 구조 이름을 바이알에 붙여 최종적으로 NMR 샘플링을 하면서 최종 제출하며 한 달간의 약학연구입문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점심시간엔 동기들과 '차 바이오 콤플렉스'에 있는 탁구와 당구 및 다트 놀이를 하며 틈틈이 운동을 하고 구내 카페에서 잠깐동안 수다를 떨면서 소소하지만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조교님들이 실험 원리 및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해주셨기에 지난 학기에 수강한 약학실습 1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경험뿐 아니라 점심시간에 판교 맛집들도 탐방해보면서 재밌는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나영화 교수님 랩실 약학연구입문 21 배예진, 21 양승원, 22 박상원, 22 정희찬 >

최보윤 교수님 랩실에서는 임상분야를 다루며 논문 주제를 정하여 end note를 통한 논문 분류 작업과 CMA 프로그램을 이용해 OFS와 OS 파일을 직접 만들면서 임상 데이터 메타 분석을 위주로 한다. 최보윤 교수님 랩실에서 약학연구 입문을 경험한 21학번 최다혜 학우는 임상 연구의 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세심함을 기를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유희 교수님 랩실은 접합(conjugation), twitching assay, 스포팅 기술 등 미생물 실험을 주로 다룬다. 일주일에 한 번 랩 미팅에 참석하고, 수행한 연구에 대한 PPT 발표를 통해 대학원 생활을 간접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조유희 교수님 랩실에서 약학연구입문을 경험한 21학번 박서연학우는 실험실은 언제나 바쁘고 활기차서 지루할 틈이 없었고, 교수님과 박사님, 대학원생들과 친밀한 관계를형성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기회였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외활동이 궁금해?

KNAPS 기획국 편

Q. KNAPS란 어떤 단체인가요?

KNAPS는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r Pharmaceutical Students'의 약자로 한국약학대학생연합으로 불립니다. 2007년 3월에 설립된 비정부, 비종교, 비정치적인 비영리단체로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재학생들과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약 4,800여 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약학대학생연합 IPSF의 아시아태평양지부인 APRO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Q. 기획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KNAPS 정회원 단톡방 및 각 학교 공지방에 KNAPS 스태프 및 정회원 리쿠르팅 관련 공지가 매 학기 초에 올라오게 됩니다. 각 국의 리쿠르팅 설명을 잘 숙지하시고 제한 마감 날짜에 맞춰서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획국의 경우, 지원서로 1차 선발을 하고 면접으로 2차 선발을 진행합니다. 지원서와 면접에 KNAPS, 그리고 기획국에 대한 열정을 가득 담아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Q. 기획국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무엇이 있나요?

지난 1년간 기획국에서 진행했던 행사는 총MT, 크리스마스 파티, 케뉼랭 가이드, 케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기획국은 주로 KNAPS 정회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색다른 행사도 기획하여 선보이며, 국원들이 원하는 행사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 기획국에서 주관한 케육대회 행사 포스터



▲ 총 MT 행사에서 단체사진

Q. 기획국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획국을 추천하는 이유는 동기들 간의 번개 모임, 소모임이 가장 활발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최강 'E'인 사람들로 똘똘 뭉친 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생일자가 있는 달에는 생일파티, 국내/해외 여행 번개를 주최하기도 하며 평소 약 한 달에 1~2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기획국에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기획국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서로 끈끈한 동기애가 넘치는 분위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획 경험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약대 생활을 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획국 친구들'을 얻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좋을 때는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기획국 동기들끼리 뒷풀이 단체사진

C 세 번째 MT 🔻



차의과학대학교 약학과 22학번 동기 MT가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22학 번끼리 가는 세 번째 MT라 모두 익숙하고 안 정적인 모습이었으나 마음만은 처음 못지않은 설렘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약리학 수업을 마치고 조금 늦은 시간에 출발해야 하는 터라 각자 선택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6: 30쯤에 도착하기로 하였다.

숙소는 포천에 있는 명당 펜션이었는데 생각한 거보다 넓고 쾌적했다. 도착한 순서대로 짐을 정리했다. 바로 저 녁 시간이라 고기와 소시지를 구워 먹으며 배를 채웠다. 펜션 사장님께서 직접 고기도 구워 주셔서 더욱 좋았다. 가지고 간 술과 음료로 배를 채우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모여 윤재원 학우가 준비해 온 여러가지 게임을 했다. 코난 추리 게임, 익명의 라디오, 나락 퀴즈쇼 등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나락 퀴즈쇼는 동기들 간의 친분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다. 내가 학점이 제일 낮을 거 같은 동기 후보에 오른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뽑히지는 않아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ㅎ

게임 후 술이 조금 부족하여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얼마 만인지.. 같이 걷는 동기가 있었음에도 살짝 무섭기도 하였다. 처음 낯설고 서먹했던 첫 MT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소중한 동기들이 되어있다는 사실에 새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모두 이틀 동안 즐겁고 재미있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다.

다이들동아리 interview







ACHAPPY (밴드부)_임세원





#어차피 #차약밴드부 #락팜페 #정기연주회

1. 밴드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라고 부르시면 되는데요, 차대의 cha, 그리고 행복하게 밴드를 하고 싶다는 뜻에서 happy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2. 밴드부에서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주로 연주하나요?

부원들이 하고 싶은 곡에 따라 장르에 관계없이 선곡을 하지만 그래도 주로 유다빈밴드 같은 국내 인디밴드 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 밴드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3월에 전국약대밴드축제(락팜페)와 총엠티 날짜가 겹쳐 거의 잠을 못 잔후 가평에서 합정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가 공연했던 적이 있어요. 게다가 순서도 3부 마지막이라 거의 밤 11시가 되어서야 공연을 했었는데 힘들지만 그만큼 극한의 경험이어서 기억에 남네요 ㅎㅎ

4.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있나요?

지난 7월에 처음으로 덕성여대와 외부연합공연을 마쳤습니다. 직접 기획, 홍보, 무대 준비를 모두 맡은 건 처음이라 힘들지만 동시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어요. 2학기에는 어차피 정기연주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보러와 주세요~!

5. 밴드부에 멋진 오빠 누나들이 많다는데 사실인가요? 매일 강의실에서 보던 얼굴 그대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bigcirc



차아름_유하영



OQA

 $\overline{}$

#차아름 #약초원 #생약학 #과일청만들기

1.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차아름은 교내 약초원을 가꾸며, 저희의 마음 또한 함께 가꿀 수 있는 힐링동아리입니다!

2. 차아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약초원 청소 및 관리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학우들 간의 소통을 위해 과일청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약초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도라지를 발견하였는데 동기 한명이 맛을 직접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주워 드시면 안 돼요!!

4. 동아리 활동이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생약학 시간에 배우는 식물들이 약초원에 가면 존재하는데요, 직접 보며 공부하니 쉽게 A+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본인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과 기대인데요, 그런 점이 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쁜것두요ㅎㅎ





약클라이밍_ 김원근





#약클라이밍 #암벽등반 #오지탐험 #등산



하늘을 향해 오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아웃도어 클라이밍 동아리, 약클라이밍 입니다!

2.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동아리원들과 함께 암벽등반장을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클라이밍이 처음인 부원들도 다들 즐겁게 활동해서 너무 좋았습니다ㅎㅎ 그리고 해룡산을 열심히 오르고 정상에서 마시는 파워에이드 한 잔! 너무 좋았어요

3. 1학기에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음…, 아쉬웠던 점은 크게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파미르고원을 탐사하러가는데 다음에 동아리원들과 세계 오지를 함께 탐험하고 싶습니다!!

4. 동아리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라면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땀 흘리고 먹는 고기는 너무 맛있다!!!

5. 하체 운동 best를 꼽자면?

흔히 스쿼트라고 알고 계시는데, 등산이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여러분, 약클라이밍에 들어오세요!

\bigcirc



요정(춤동아리)_ 방예진



OQA

#요정 #댄스댄스 #전댄페 #언제든지환영 1. 동아리 이름이 요정?? 어떤 동아리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차의과학대학교 댄스동아리 요정입니다! 요약 정리의 줄임말로, 약학대학에서의 즐거운 경험들을 댄스 활동을 통해 요약정리 해보자는 좋은 의미도 있구요! 단어 그대로 저희 같은 귀여운 요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2.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작년 전국댄스페스티벌 대회 일정이 총Mt 다음날이었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ㅎㅎ.총 mt에서 술 많이 먹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잘 지켜지진 않았네요 ㅎㅎ 그래도 행사 무사히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3. 댄스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춤을 혼자만이 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선 맞추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습 후 팀원들과 매우 친해질 수 있습니당!

4. 안무를 만들 때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기존 안무에서 일부 수정하여 무대를 만들어요. 춤 실력이 더 는 후에는 창작 안무 도전해 보고 싶긴 하네용! 안무 아이디어 있으신 분도 환영이에요~

5. 입부를 고민하고 있는 신입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춤을 춰 본 적이 없어서, 혹은 자신이 춤을 못 추는 것 같아서! 입부를 고민을 하고 있는 분! 얼른 신청해주세요 ㅎㅎ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춤을 좋아하고, 선후배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아이돌 닮은 선배들이 차근차근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환영합니다





공차 (축구동아리)_류승우



 \bigcirc \bigcirc \triangleleft

#공차 #축구동아리 #해솔림픽 #준결승 1. 공차 축구 동아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공차는 말 그대로 축구 동아리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2. 축구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다들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가장 즐거웠던 점은 경기에서 이겼을 때입니다. 힘들었던 점은 모두가 열심히 뛰었는데도 경기에서 졌을 때입니다.

3.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올해 해솔림픽에서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약학과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4. 다른 학교나 단체와의 교류나 경기가 자주 있나요?

안타깝지만 학교 거리가 멀어 다른 학교와 경기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ㅠㅠ. 다만 차대 스포츠 의학과 혹은 중앙동아리(챔피언스)와는 종종 친선경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5. 여성회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성비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남녀 성비는 약 9:1입니다. 실력만 충분하다면 함께 대회도 나갈 수 있고, 인스타 관리 친선 경기 등 다양한 활동에 모두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팜양갱_김원근



#올해신설동아리 #힙합알앤비 #전약제공연 #팜양갱갱갱 1. 팜양갱은 올해 신설된 동아리인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과 R&B를 사랑하는 팜양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약대 첫 힙합동아리를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전약제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신생동아리라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들어오시면 함께 공연 가능합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힙합 알앤비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많이 많이 활동하고 싶어요~~!!

3. 첫 학기가 막 지났어요. 짧지만 기억 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전국 약대생 축제에 가서 영환이와 공연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기들이 무대 앞까지 와서 좋은 리액션을 해줘서 좋은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선후배 동기들 다들 너무 고마워요!

4. 영입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끼와 재능이 있는 친구, 힙합과 R&B를 사랑하는 친구, 외에도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Peace

5. 신입 부원이 되기를 망설이고 있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FuXXing Free. Just enjoy it.



또 기독교인들을 위한 '하늘소망', 오케스트라 동아리 '팜상블', 탁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콕쳐', 농구 동아리 '파마스'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으니 다들 언제든지 동아리에 관심 있다면 환영 환영한다고 합니당! 행복한 차약 동아리 생활을 우리 모두 즐겨봐용



오채현 기자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을 이르는 말인 갓생이라는 등장과 함께 갓생 사는 방법을 실은 자기계발서 혹은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학우들도 갓생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갓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학우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학우가 언급되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2학년 권채연 학우에게 갓생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Q1. 안녕하세요! 학업과 일 취미활동, 모두를 놓치지 않는 갓생을 사는 학우로 가장 많이 언급되셨어요. 갓생의 주인공으로 뽑힌 소감 부탁드립니다.

A1. 어… 약간 당황스럽지만 많은 분이 저를 좋게 봐주셨다니 기분이 좋네요…!ㅎㅎ 저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는 성격이에요. 또 마음먹은 것들은 스스로 만족할 만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이 저를 굴러가게 하지 않나 싶어요.

Q2. 본가가 학교와 먼 거리임에도 통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통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통학하는 다른 학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2.사실 작년에는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 기숙사 신청 기간에 해외여행 중이어서 깜빡하고 신청을 놓쳤어요... 이런 점에서 저 스스로는 꽤 허당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매일 일찍일어나야 했던 점이에요. 물리적인 체력이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바닥난 체력이사람들을 대할 때의 태도로 연결되지 않도록항상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학버스에서 전자책 읽기, 공강에 수업 내용 복기등 좋은 습관들을 기를 수 있어 나름 유익한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쥐어짜 낸거고... 통학하는 학우분들,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Q3. 학교에 다니면서도 수많은 과외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일이 아닌 과외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외를 잡는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A3. 처음에는 과외의 가장 큰 이점인 시간 조절 때문에 과외를 시작했어요. 방학에는 보통 오전에 수업을 잡아 기상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다른 일정을 잡는 것도 수월하게 했어요. 학기 중에는 주말을 통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또하다 보니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고 아이들성적 올리는 것도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외를 잡는 것은 능력보다여건과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 후 유지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습 속도와 강도, 학습에 대한 피드백, 동기부여등 원하는 영역을 많이 채워줄수록 좋아요!



Q4. 운동과 기타 연주 같은 여러 취미 생활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취미 생활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취미활동이 자신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4. 기타는 밴드부에 들어가면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1학년의 제 결정 중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새벽 연습과 합주들은 반 복 적 인 학교 생활에서 큰 활력이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온 취미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인데 바쁘더라도 항상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운동은 잡생각을 없애는 데 좋아요. 복싱과 헬스 모두 다른 매력으로 재미있게 배웠어요. 취미의 본질은 즐거움에 있고, 저는 즐거움이 인생에서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Q5. 열심히 사는 자신만의 원동력 혹은 목표가 있나요?

A5. 이건 최근에 든 생각인데, 열심히 사는 시기가 있어야 쉴 때의 편안과 평화가 극대화되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쉴 때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력을 써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달까? 그런 감정의 선순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시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6. 갓생을 살고 싶어 하는 다른 학우분들께 조언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6. 성취감은 인간에게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이 아주아주 작은 성취일지라도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했어요.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컨트롤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일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또 다음 계획에도 도움을 주고, 만족스러운 오늘은 다시 내일을 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갓생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해외여행기

목현승

DAY 1 - 2월 15일

1.이동 (오건 6:45하스로 공항 도착->Hammersmith station)

2. 킹스크로스 & ST. Pancras 역 - 9와 3/4 응강장

- 3. 대영박물관
- 4.초상호기발러리
- 5. 트라팔가 광장

6. 친구네 랩실 사람들과 저녁식사(레바논 음식)

mannanni financiani

DAY 4 - 2월 18일

- Liberty 백화점
- Hamleys 장난감 백화점
- -Fortnum and Mason

- & 런던아이 & 타워 브릿지

1. 노팅형

- 사정은 마켓운동네탈방

2. 아침: 빵집 Ottolenghi

3. Hyde park & Kensington park +두 공원 경계선에 있는 이탈리안 가든

4. 아스날 홍구장

5. 하리포터 스튜디오 랜던

6. Zi Al/X1Lig meal deal

3. Theatre district

4. 자녀: Joy King Lau

· 차이나타운에서

5. 웨스트민스터 사원 &빅 벤

:저녁 #를 감상

7. 21 Lq: fish and chips DAY 3 - 2% 17% 1. 비틀즈 앨범 자켓속 아비로드

2. 리틀베니스

3. 셜록홈즈박물관 _ 기념품샵만

N 6. 221L121

- ZZILIZI OF 7

4. 토트넘 VS 울버햄튼

5. 저녁 태국 음식: 101 Thai kitchen

1. १९० ह्यार्ट्य भरी देवा मा दिस्त्वा

2. 세인트 제양소 공원

3. म्हाक रे (ट्रश्यटम्य)

- ल शरी वेभट्टेटम वं (उट्टारात्रा टम वंर)

John 4. 34 74: Old Dutch Pancake House

2. 타워프링기 (버스로 이론) - 한국이 어딘가나 있다

_친구와 그의 친구들과



DAY 6 - 29 200

1. 아침: Sunday Cafe

2. South Kensington area

- Harrods 백호·정

3. Hyde park to the

4. Candela Tearoom

- 스콘 맛집

5.일찍들어와서 심

6. 집에서 친구&룸메가 차긴 저녁 식사

*+약 해외여행기



1. 지하철 편

- 영국은 대중교통 요금이 매우 비싸다. 지하철이나 버스 한번 타면 3~4천 원이 든다. 오랜 기간 있을 거라면 Oyster 카드 일주일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히스로 공항에서 처음에 Oyster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하려 했을 때 현금으로는 불가능해서 당황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꼭 챙길 것!
- 영국 지하철은 Elisabeth line(한국의 공항철도 느낌)을 제외하면 객실 내 의자나 환경이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
-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은 영국 말로 tube라고 부르고, 규모가 큰 역은 tube 외에도 다른 종류의 열차가 많이 다니니 안 헷갈리게 주의할 것!
- 한국으로 따지면 공덕역에서 5,6호선은 같은 역사에 승강장이 있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은 아예 카드 찍고 |층 밖으로 나가서 2∼3분 걸어야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 지하철역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에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주의!

2. 기타 편

- 비자/입국심사 없이 가는 나라: 여행이라 비자도 필요 없었고, 비행기에서 내리고는 "FAST TRACK"이라고 해서 입국심사도 딱히 없이 금방 수화물 찾으러 내려올 수 있었다. EU국가를 제외하면 딱 I2개 국가의 국기를 패스트 트랙 간판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가 있어서 국뿅이 차올랐다. 단, 내가 너무 빨리 온 나머지 수화물을 찾을 때 매우 오래 기다린다는 점.
- 버스: 내릴 때 카드를 찍고 내리지 않는 문화가 있다. 환승은 어떻게 확인하나 궁금했지만 Oyster 카드 일주일권을 썼기 때문에 그냥 신경 껐다.
- Meal Deal: 브랜드/개인 편의점이나 브랜드/동네 슈퍼마켓에 모두 있는 제도인데, 샌드위치+음료수+빵 or 과자 or 초코바를 합쳐서 한 번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샌드위치 포장에 Meal Deal은 몇 파운드라고 스티커도 붙어있다. 나도 아침은 거의 이걸로 해결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했다. 아침에 이거로 하루 시작하는 날 보더니 친구는 런던 사람 다 됐다고 했다.



■불점■ -> 이겨서 좋은 울버햄튼



l. 티켓 사기

- 인스타그램이나 인터넷을 보면 구매대행업체들이 많다. 좋은 자리가 아닌데 인당 3∼4○만 원이라 포기.
- 영국사는 친구가 영국 사이트에서 예매해서 인당 21만 원에서 예매를 할 수 있었다. 제일 윗자리라서 선수가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경기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
- 구글에 "Footballticketnet"이냐, "Sports Tickets (seatsnet.com)"을 검색해서 보면 훨씬 저렴하게 가능!
- 2. 맥주 반입 불가
- 맥주 사면 관중석 밖에서 다 먹고 들어가야 한다. 너무 힘들었다. 주변에 음식 먹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음식도 안 되는 듯. 우리 팀이 못할 때 영국 아저씨들의 욕은 정말 살벌했다.
- 3. 토트넘하고 울버햄튼 경기라 한국인이 정말 많았다. 구장에 기만 명이 들어가는데, 현지 기사로 한국인 6천 명이 넘게 왔다고 했다. 경기 끝나고 주차장 게이트 앞에 줄 선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영국인들도 신기해하고 갔다.

해리 포터 스튜디오 방문

- l. 이름에는 London 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런던 밖의 Leavesden 이라는 교외 지역에 있다.
- 가는 방법엔 2가지가 있다. 한국 or 런던에서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되겠고 버스가 묶인 상품을 사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되켓을 구매한 후 대중교통으로 Euston 역으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Watford Junction 역으로 가서 왕복 셔틀버스를 타는 것이다. 요금이 2.5파운드라고 들었는데, 안 받아 갔다.
- 참고로 EI켓은 한 달 전에는 사야 원하는 날짜를 맞출 수 있고, EI켓이 없으면 왕복 셔틀버스도 못 탄다.
- 부득이하게 못 갈 경우, 네이버에 검색하면 환불 선배들의 친절한 가이드라인과 경험담을 볼 수 있다.
- 2. 입장 후에만 4시간을 거기서 있었을 만큼, 어릴 적 해리 포터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면, 그곳에서 정말 환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해덕이라면 무조건 필수!

공원 맛집 런던

- I. 원래 런던 내 많은 공원들은 왕실 소유였다가, 시민에게 개방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보존이 잘 되어있고 그 숫자도 많다.
- 2. 하이드 파크와 켄싱턴 파크 경계면에 있는 이탈리안 가든은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너무 아름다워서 다음날 일정을 수정해 한 번 더 갈 정도였다. 단, 나는 운 좋게도 런던에 있는 일주일간 비가 안 오긴 했다.







손윤서 기자

Q.가장 많은 취미를 갖고 있을 것 같은 동기는?



동기들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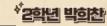


취미 별로 없는데.. 한 36개 정도...?



재미있어 보이면 일단 해보는 편입니다.

|학년 전찬혁



...(해외 고산 출국중)

*3학년 쿠테모



4학년 김원근



공부 빼고 다 잘해요..^^



Q.나중에 가장 부자가 되어있을 것 같은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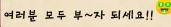


1학년 인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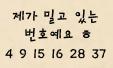
*2학년 이전째

가치를









감사합니다~



4학년 성상현



목표는 세계 |위!!







Q. 가장 옷을 잘 입는 것 같은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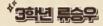
* |학년합세영



* 2학년 이제은



"류승우기명"







*4<u>확년</u> 박태현

동기님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도전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텀민입니다^^

⁴5학년 횡선민

Q. 앞뒤가 가장 똑같을 것 같은 동기는?



∜1학년 이다인





⁴2학년 최홍준

니들이 뭘 알아.



모범적이라는 뜻이죠?

*3학년 윤재원

땡큐



4학년 김윤재



*5학년 조한규

사실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ㅋ



차팜인을 후원해주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차팜인 13호 즐겁게 보셨나요? 차팜인은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소식지 입니다. 발간을 이어 가면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NH농협은행 302-1873-7787-51 (예금주: 김동현)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 알뜰히 사용하여 더 좋은 지면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chapharmin@naver.com / 010-2751-4015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약학대학 소식지 <CHA PHARM IN>은 차약인들이 직접 차약인들의 소식을 담아, 차약인들과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약인들과 나누고 싶은 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환영합니다. 짧은 수필, 나누고 싶은 정보, 재밌게 읽은 책에 대한 소개, 방학 기간 동안 다녀온 여행의 기록, 소중히 그린 그림, 사진, 만화, 문 학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변의 소식지 편집위원이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고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답례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약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CHA PHARM IN〉 편집장 목현승 chapharmin@naver.com / 010-6476-7094

